

#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 함평 자동차극장에 몰렸다

### 개장 20일 만에 관람 대수 1000대 돌파 비대면 예매·비노출 관람 장점이 주효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전남 함평의 자동차극장이 개장 20일 만에 누적관람 대수 1000대를 돌파했다.

지난 2월26일 함평군에 따르면 1월 28일 함평엑스포공원에 개장한 자동차극장이 20일 만에 누적관람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섰다.

함평 자동차극장은 호남권에 조성한 3번째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2개

관에서 총 180대 차량의 동시 상영이 가능하다.

함평군은 시설 규모도 한몫 했지만 광주와 인근 시·군의 접근이 용이하고, 전국 두 번째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안정적인 극장 운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반 영화관과 달리 자동차 안에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비노출된 채 영

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을 극장에 불러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함평군은 개장 1개월과 누적관람 차량 1000대 돌파를 기념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요술램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체관람(사회·종교단체, 협회 등) 사전예매가 30대 이상일 경우, 단체가 원하는 영화를 사전 조율해 평일 시간대 중 관람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3월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극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장한 자동차극장이 많은 군민과 인접 시·도민의 관심으로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 같다"며 "전국 최고 수준

으로 조성한 만큼 대도시와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 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충전 가능한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 출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

무안군은 무안사랑상품권의 사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일부터 충전이 가능한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을 출시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NH농협은행)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스마트폰 play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차크(chak)'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신분증, 휴대폰을 지참해 무안군 관내 농협과 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은 기존 지류형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중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거나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외 또는 NH농협카드 미가맹점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출금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안사랑상품권은 지류, 모바일(QR), 카드 등 3종류로 특별 할인을 10%를 적용하며, 상품권은 이틀 3종을 합산해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카드형 무안사랑상품권 출시로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재난지원금 내일까지 신청하세요"

목포시가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에게 신청을 독려했다.

시는 지난 2월 4일부터 전시민 재난

지원금 신청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

생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신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줄 것을 요청

했다.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 현재 10만원이 지급되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20만8,075명으로 집계됐으며, 93.0%의 신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조속히 신청해 가정과 목포 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암군, 식물조직배양실 신축...고구마 무병묘 공급 확대

기존 비해 4배 이상 큰 연간 16만본 종묘 생산 가능



영암군이 식물조직배양실을 신축해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영암군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

배양실과 유리온실 등을 갖춘 989㎡ 규모의 식물조직배양실을 지난해 7월 착공해 1월 신축·준공했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다.

이 곳에는 기존 시설에 비해 4배 이상 큰 연간 16만본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512㎡ 규모의 유리온실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배양에서 순화·증식까지 고구마 무병묘를 체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무병묘는 일반묘 재배보다 고구마의 모양과 색택이 우수하며 맛 또한 좋아 고구마 재배농가의 선호도가 높다.

영암=조태호기자

## 신안군, 4월 예정 '섬 툄립축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취소한다

개화 전 꽃봉오리 제거...상춘객 현장 방문 사전 차단

신안군은 4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던 '2021년 섬 툄립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25일 밝혔다.

당초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살펴보면 비대면 랜선축제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3차 대유행 이후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제 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신안군은 임자도 방문 자제 흥

과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툄립 개화 전 꽃봉오리를 제거해 상춘객들의 현장 방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 방역초소 등을 운영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가 취소돼 아쉬움이 크지만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영광군,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최대 1800만원

영광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월 26일 밝혔

다.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45세 이

하의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경우 3년간 청년은 1800만원,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한다.

영광=서희권기자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